

##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 성별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공혜원 (경기대학교 조교수)\*\*

### 국 문 요 약

최근 들어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맥락적 차이 규명에 초점을 두고,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 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경험,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가 사회안전망과 같은 국가 맥락적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삼원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연구표본은 한국을 포함한 총 2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최소 2,00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총 40,388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분석 도구는 Hayes의 Process를 활용하여 창업 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 성별, 성별 격차의 삼원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 조절효과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는 사회안전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사회안전망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남성보다 기업가 활동의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문에 제시하였다.

주제어: 여성 기업가정신, 창업경험,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 활동, 기업가 활동의도, 사회안전망, 성별, 삼원조절효과

## I. 서론

기업가정신은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경제성장 및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기업가정신 관련 주제들은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 기업가정신은 경제 성장은 물론 고용 다양성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더욱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De Bruin et al., 2006; Ramadani, et al., 2015; Minniti et al., 2005; Naguib & Jmali, 2015). 때문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성별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기존 누적된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결과들은 일반화된 연구 결과들로, 기업가 활동의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여성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성별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업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인다거나, 기업가정신 교육이 여성들의 기업가정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공통으로 보고되고 있다(Dickson, et al., 2008; Martin, et al., 2013; Pittaway & Cope, 2007; DeTienne & Chandler, 2004; Rauch & Hulsink, 2015).

그러나 일부 연구 결과들은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와 관계가 없거나, 기업가 활동의도를 줄인다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Souitaris, et al., 2007; Von Graevenitz, et al., 2010). Martin, et al.(2013)은 메타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정신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은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경기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hwkong@kgu.ac.kr / chomiri79@gmail.com

· 투고일: 2018-11-13 · 수정일: 2018-12-11 · 게재확정일: 2018-12-25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는 주로 북미와 유럽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들로 아시아 권역을 포함한 비서구권의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Naguib & Jmali, 2015). 특히 선행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제도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다(Fayolle & Linan, 2014; Fini, et al., 2012; Welter, 2011; Zahra & Wright, 2011). 예를 들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및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한계점을 토대로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관계에 조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맥락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 및 사회안전망과 같은 요인들을 제안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조절 및 삼원 조절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경험,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해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연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기업가 활동의도

기업가 활동의도는 "새로운 사업 창업을 계획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자기 인식한 신념"이라고 일컫는다(Thompson, 2009; Maresch, et al., 2016). 기업가 활동의도는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 있어 자주 측정되고 요인으로(Fayolle & Linan, 2014), 의도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임이 확인되었다(Maresch et al., 2016). 특히 행동이 관찰하기 어렵거나 흔하지 않을 때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연구자들은 의도를 통해 행동을 예상한다(Krueger, et al., 2000). 최근에 수행된 Kautonen, et al.(2015)의 연구는 기업가 활동의도가 기업가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규명하는 것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실무자와 교육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계획행동이론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으로(Ajzen, 1991), 기업가 활동의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Schlaegel & Koenig, 2014; Krueger & Carsrud, 1993). 계획행동이론은 미래 행동은 의도에 의해 선행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수록 실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 의도는 개인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통해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태도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로써 행동 결과가 긍정적으로 기대될수록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해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평가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집단의 의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실제로 자신이 그 행동을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Bandura(1986)가 사회학습이론에서 밝혔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도 바꿔 말할 수 있다(Ajzen, 1991). Armitage & Conner(2001)는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한 185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행동이론이 기업가 의도 39%, 행동 27%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절에서는 TPB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1.1 창업경험, 기업가정신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적 의도의 관계는 계획행동이론의 구성 개념 중 태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감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전술한 바 있듯이, 태도는 행위 결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지각된 행위 통제감은 개인이 행위를 수행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Ajzen, 1991).

창업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은 한 개인이 특정 활동을 추구하는 기간 혹은 특정한 관행에 대한 반복 수를 의미하여, 반복 지속한 관행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한다(이종건 외, 2014). 창업 경험은 해당 분야의 지식을 활용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DeTienne & Chandler, 2007). 또한, 창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 및 지식을 얻는데 더 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과거 창업경험은 가업 임시 쌍기 활동 결과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평가(Krueger et al., 2000; Pruett, et al., 2009; Segal, et al., 2005), 행동에 대해 좀 더 호의적 태도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창업경험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지식, 인적자원을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해 볼 때, 지각된 자기통제 감은 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꼽는다. 개인의 지각된 통제감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데,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창업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와 긍정적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창업경험은 개인의 지식 및 정보를 얻고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가 활동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a: 창업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일 수 있다. 창업경험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 역시 인적 자본 이론(Becker, 1975)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Chen, et al., 1998)에 근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적자본을 기업가적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다(Davidsson & Honig, 2003). 예를 들어, Douglas & Shepherd(2002)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는 기술과 지식을 인적 자본으로 보고, 이러한 인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없으면 실제 기업가정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선행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업가적 의도와 긍정적 관련이 있을 수 있다(Zhao, et al., 2005).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란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일컫는다(Chen et al., 1998; McGee, et al., 2009).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은 과업성취, 대리경험, 구두 설득, 그리고 감정적 각성과 관련된 네 가지 결정요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함으로써(Bandura, 1986)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교육이나, 기업가정신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은 사업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Dyer, 1995).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교육자 및 실무 경험자를 통해 받게 되는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연스럽게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교육자와 실무자에 의해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Robinson et al., 1991).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는데, Bae et al.(2014)는 메타분석 결과들 사이의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b: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성별 조절효과**

기업가적 활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창업 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활동의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받아들여지고 있다((De et al., 2007, Chen, et al., 1998, Gupta, et al., 2009; Nowiński et al., 2017; Zhao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사회역할이론 (social role theory)과 성역할 고정관념 (gender role stereotype)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역할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가치는 남성이나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사회적 역할과 고정 관념을 형성하는데 (De Vita, et al., 2014),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성이 더 높다(Maes et al., 2014). 또한, 사회적 역할 이론(Eagly, 1987)에 따르면,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남성과 여성의 성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Karimi, et al., 2014) 여성은 남성의 역할로 간주하는 활동을 덜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다. 기업가적 활동을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Thébaud, 2010).

그러나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는 성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회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고유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삶의 시작부터 여성과 남성의 경험 사이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Shirokova, et al., 2016). 예를 들어, 남성은 여러 방면에서 사회화 경험의 기회가 많지만, 여성은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던 기업가적 활동에 도전하고, 창업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지식은 기업가적 활동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창업 경험과 같은 학습경험이 개인의 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기업가 활동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a: 창업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적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의 효과는 모호하다. 일부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반면(Oosterbeek, et al., 2010, Westhead & Solesvik 2016), 다른 연구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Bae et al., 2014).

그러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비록 성 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 한계로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수 있으나(Mimiti & Naude, 2010), 여성이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의 기회가 많을수록 교육 기간 동안 획득한 일반적 인적 자본과 더불어 인적자본을 통해 지식과 동기부여를 얻게 되어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 및 상황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Shirokova et al., 2016).

선행연구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가 여성이 더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Nowiński et al.(2017)은 여성이 남성보다 기업가 활동의도가 낮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인한 기업가 효능감은 여성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Wilson et al.(2007)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chott et al.(2015) 사업 교육 이후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남성은 1.5 배, 여성은 1.8 배 더 증가한다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다는 것(Nowiński et al., 2017; Packham et al., 2010)으로 밝혀지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습경험은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 의도와 관련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역할에 대한 일관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b: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정 (+)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2.1.3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기업가 활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성별과 같은 개인특성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제도와 같은 환경 요인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환경 요인은 개인의 기업가 활동의도 및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esen, 2013). 선행 연구는 자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평가(Lüthje & Franke, 2003), 지역 맥락(Walter & Dohse, 2012), 지식(Dohse & Walter, 2012), 기업가정신 교육(Martin, et al., 2013; Zhang et al., 2014)이 기업가적 활동에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자는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Fayolle & Linan, 2014; Fini et al., 2012; Welter, 2011; Zahra & Wright, 2011). 가령, 경제 발전 수준, 금융 자본 이용 가능성 및 정부 규제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기업 지원 서비스(Der Foo, et al., 2005), 기술 이전 사무소와 대학교 창업 보육 센터와 같은 창업지원(Mian, 1997)은 기업가 육성 프로세스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특성을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은 기업가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Shinnar, et al., 2012). 각 사회문화는 새로운 비즈니스(벤처) 창출에 관한 특정 가치와 규범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업가적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기업가적 활동을 회피하는 이유로 행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는다(Shinnar et al., 2012). 이는 행위 결과가 개인에게 치명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업가 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경우, 재기할 수 있는 자신감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덜 할 수 있다.

기업가 활동의도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안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 회피율이 높다(Kanze, et al., 2018; Wagner, 2007). Eckel & Grossman(2003)은 다양한 상황(예: 자산 관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 회피율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 연구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 44%, 여성은 56%가 기업가 의도를 회피하는 이유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고 밝힌 바 있다(Wagner, 2007).

창업경험 및 기업가적 경험에 따라 기업가 활동의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Kuckertz, & Wagner, 2010; Politis, et al., 2012) 이는 개인이 인식한 불확실성 회피 수준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nnekers, et al., 2007). 가령, 창업경험이나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의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창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위험 지각 수준이 낮은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로 인해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경우 실패로 인한 위험 지각 수준이 낮을 수 있으므로 기업가 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Hofstede(2001)에 따르면 독특한 문화적 차원 중 하나는 불확실성 회피인데, 불확실성 회피는 구성원이 불확실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의해 위협을 느끼는 범위로 정의된다(Hofstede, 2001). 이 개념은 기업가가 위협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같은 특징과 관련이 있다(Wennekers, et al., 2007). 가령,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경우, 다시 말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은 사회문화 집단의 경우 개인은 기업가적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Shinnar et al., 2012), 이는 기업가 활동의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 수준이 낮은 경우 다시 말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경우,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두려움이 적어짐으로써(Kautonen, et al., 2010; Yordanova & Tarazon, 2010)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가 활동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규범 관점에서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지 않은 경우, 즉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기업가 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가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 암묵적 혹은 명시적 압력을 줌으로써(Engle, et al., 2011) 기업가 활동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불확실성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즉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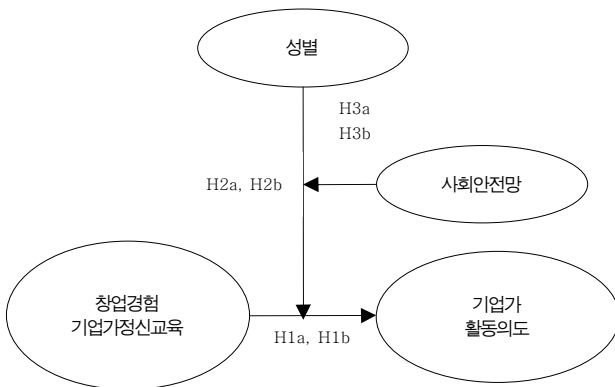
기업가 활동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Autio, et al., 2013).

정리하면, 여성은 위험 회피 성향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Kanze, et al., 2018)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감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높게 지각할 경우, 여성은 기업가 활동이 실패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지각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사회안전망을 낮게 지각될 경우, 여성은 기업가 활동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지각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창업경험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높은 집단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a:** 창업경험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가설 3b:** 기업가정신 교육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델

### III. 연구 방법

#### 3.1 자료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추세 리포트(이하 GETR) 자료를 활용하였다. GETR 데이터는 기존에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OECD-Eurostat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데이터로 좀 더 철저한 (Rigorous) 조사 방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정신, 생태계 및 성과를 조사하였다는데 큰 장점이 있다.

GETR 자료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표 1> 참조). GETR의 목표 모집단의 범위는 조사대상 20개국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로 이루어졌다.

연구 표본은 한국을 포함한 총 2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약 2,000여명의 표본이 선정되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유효 응답자 기준 총 40,38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각 주요 변인에 대한 응답자별 표준 편차를 분석한 결과 2,506명의 응답자 표준편차가 “0”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문항에 대해 같은 응답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성실 응답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자들은 최종 자료 분석과정에서 삭제되어 37,882개의 표본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이중 여성 47.5%, 남성 52.5%로 확인되었다. 국가별 표본 수 및 국가별 성별 표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가별 성별 표본 특성

국가	N	여성		남성	
		N	%	N	%
한국	1,927	923	47.90	1,004	52.10
일본	1,665	834	50.09	831	49.91
중국	1,944	908	46.71	1,036	53.29
인도	1,881	777	41.31	1,104	58.69
인도네시아	1,906	829	43.49	1,077	56.51
싱가포르	1,896	904	47.68	992	52.32
영국	1,886	907	48.09	979	51.91
독일	1,892	937	49.52	955	50.48
러시아	1,912	963	50.37	949	49.63
덴마크	1,887	933	49.44	954	50.56
핀란드	1,908	914	47.90	994	52.10
터키	1,917	942	49.14	975	50.86
UAE	1,841	637	34.60	1,204	65.40
이스라엘	1,941	964	49.67	977	50.33
남아공	1,971	969	49.16	1,002	50.84
이집트	1,944	911	46.86	1,033	53.14
미국	1,861	897	48.20	964	51.80
브라질	1,885	963	51.09	922	48.91
칠레	1,951	968	49.62	983	50.38
호주	1,867	917	49.12	950	50.88
총합계	37,882	17,997		19,885	

#### 3.2 측정도구

각 변수 측정 문항은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 (GETR)’보고서를 참조하였다. 먼저 창업경험에 대한 측정은 “귀하는 창업(자영업 포함)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이분형 (Binary Scale) 척도 (1=있음, 2=없음)로 측정하였고, 이분형 척도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총 3번의 교육 경험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초·중·고등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대학교정에서 기업가정신·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직업교육/평

생교육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이분형 (Binary Scale) 척도 (1=있다, 2=없다)로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있다’ 1점, ‘없다’ 0점으로 총 3점으로 계산하였다. 사회안전망은 “귀 국가의 경우, 질병·노령화·실업·산업재해·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구축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점 리커드 척도 (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기업이 활동의도는 “귀하는 향후 새로운 창업 의향 혹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 7점 리커드 척도 (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 IV. 분석 결과

#####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에 대한 국가별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창업경험은 기업이 활동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r=.185,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정신 교육 역시 기업이 활동의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 $r=.286,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안전망과 기업이 활동의도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r=.174, p<.001$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참조).

<표 2> 국가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no.	국가명	교육총점	사회안전망	전체EAI	여성EAI	남성EAI
1	한국	.54	3.12	3.81	3.75	3.87
2	일본	.1	3.62	2.77	2.59	2.94
3	중국	1.2	3.72	4.58	4.56	4.59
4	인도	.68	3.67	4.85	4.62	5.02
5	인도네시아	1.08	4.04	5.79	5.73	5.84
6	싱가포르	.8	4.37	4.44	4.36	4.51
7	영국	.47	4.23	3.53	3.35	3.69
8	독일	.75	3.93	2.76	2.51	3
9	러시아	.95	2.81	4.13	4	4.25
10	덴마크	.54	5.09	3.29	3.21	3.36
11	핀란드	.84	3.83	3.03	2.86	3.18
12	터키	.9	2.89	4.97	4.99	4.95
13	uae	1.25	4.25	5.16	5.07	5.21
14	이스라엘	.7	3.93	3.95	3.8	4.1
15	남아공	.83	3.15	5.07	4.86	5.27
16	이집트	1.01	3.46	5.2	5.06	5.31
17	미국	.66	4.17	3.99	3.67	4.29
18	브라질	1.07	2.45	4.88	4.8	4.96
19	칠레	1.11	2.95	5.36	5.35	5.38
20	호주	.48	4.41	3.6	3.36	3.84

주1) EI=기업가적활동의도 (Entrepreneurial Activity Intention)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Mean	S.D	1)	2)	3)	4)	5)	6)
1) 성별(1=남성)	.52	.50	1.00					
2) 나이	3.32	1.28	.016**	1.00				
3) 결혼여부(1=기혼)	.54	.50	.033**	.329**	1.00			
4) 자녀유무(1=있음)	.47	.50	.041**	.323**	.862**	1.00		
5) 학력	4.17	1.07	.00	.054**	.093**	.070**	1.00	
6) 직종(1=자영업)	.18	.38	.035**	.043**	.048**	.050**	-.045**	1.00
7) 직종(1=공기관)	.11	.32	-.01	.064**	.070**	.073**	.104**	-.167**
8) 직종(1=전문직)	.06	.24	.00	.00	.039**	.031**	.102**	-.117**
9) 직종(1=기타)	.00	.03	.00	.011*	-.011*	-.01	.01	-.015**
10) 수입	3.89	1.17	.099**	-.01	.178**	.179**	.132**	-.055**
11) 창업경험(1=있음)	.25	.43	.082**	.076**	.135**	.137**	.028**	.262**
12) 교육	.80	1.01	.067**	-.154**	.077**	.091**	.067**	.080**
13) 사회안전망	3.66	.64	.025**	.074**	-.035**	-.047**	.064**	-.032**
14)기업가적활동의도	4.27	1.75	.087**	-.281**	.036**	.050**	.042**	.086**
	7)	8)	9)	10)	11)	12)	13)	14)
8) 직종(1=전문직)	-.091**	1.00						
9) 직종(1=기타)	-.012*	-.01	1.00					
10) 수입	-.023**	.062**	-.015*	1.00				
11) 창업경험(1=있음)	-.037**	.020**	.00	.146**	1.00			
12) 교육*	-.018**	.042**	.00	.235**	.318**	1.00		
13) 사회안전망	.00	-.064**	.01	.017**	-.062**	-.076**	1.00	
14)기업가적활동의도	-.043**	.033**	-.024**	.168**	.185**	.286**	-.174**	1.00

주1) N=37,882, \*\* P<.001, \* P<.05

##### 4.2 창업경험과 기업이 활동의도, 성별 조절 효과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본 연구 가설 1a, 2a, 3a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기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Hayes, 2013). 본 연구는 20개 국가 표본을 활용했기 때문에 국가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 국가는 더미 변수 처리하여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후 가설 검증을 하였다.

먼저 기업이 활동의도에 대한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35, 25808)=419.860, p<.001$ , 분산 설명력은 약 34%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먼저 가설 1a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가설 1a는 창업경험은 기업이 활동의도에 긍정적 관계를 예측하였는데, 분석 결과, 창업경험은 기업이 활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beta=.438,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a는 지지되었다.

가설 2a는 창업경험이 기업이 활동의도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이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055, n.s$ ). 따라서 가설 2a는 기각되었다.

가설 3a는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로, 창업경험과 성별이 기업이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삼원조절효과의 설명력의 변화량은

$F=9.869, p<.0017$ 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창업 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는 유의한 것( $\beta=-.082, p<.01$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경험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사회안전망의 조건부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에 제시했듯이 창업경험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 안전망이 높은 집단이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단순 회귀 기울기가 유의한 것( $\beta=.438, 95\%$  신뢰구간  $[-.133, -.031]$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a는 지지되었다.

삼원조절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 관계를 도식화한 결과, <그림 2>에서 나타내듯이 사회안전망이 높은 집단에서 창업경험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기업가 활동의도에 대한 창업경험\*성별\*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기업가 활동의도						
독립: 창업경험	$\beta$	$p$	se	$t$	LLCI	ULCI
상수	4.180***		.071	58.570	4.040	4.320
창업경험(1=있음)(A)	.438***		.020	21.431	.398	.478
성별(1=남성)(B)	.205***		.018	11.470	.170	.240
사회안전망(C)	.061***		.007	9.164	.048	.074
A*B	-.055		.039	-1.404	-.131	.022
A*C	.072***		.013	5.597	.047	.098
B*C	.021		.012	1.769	-.002	.045
A*B*C	-.082**		.026	-3.141	-.133	-.031
연령대	-.269***		.008	-31.906	-.286	-.253
결혼여부	-.028		.034	-.826	-.096	.039
재너1	.133***		.034	3.955	.067	.198
학력	.067***		.010	6.621	.047	.087
직종(1=자영업)	.087***		.022	3.864	.043	.131
직종(1=공기관)	-.194***		.026	-7.546	-.244	-.143
직종(1=전문직)	-.079*		.033	-2.432	-.143	-.015
직종(1=기타직)	-.094		.253	-.372	-.590	.402
수입	.100***		.009	11.651	.083	.117
일본	-.872***		.057	-15.440	-.983	-.762
중국	.441***		.051	8.704	.342	.541
인도	.970***		.062	15.584	.848	1.092
인도네시아	1.720***		.049	35.453	1.625	1.815
싱가포르	.526***		.053	9.991	.423	.629
영국	-.279***		.056	-5.003	-.388	-.170
독일	-1.042***		.055	-18.807	-1.150	-.933
러시아	.217***		.053	4.123	.114	.320
덴마크	-.617***		.061	-1.143	-.736	-.498
핀란드	-.695***		.055	-12.547	-.804	-.587
터키	.957***		.057	16.853	.845	1.068
uae	1.053***		.053	19.872	.949	1.157

이스라엘	-.085	.054	-1.568	-.192	.021
남아공	1.072***	.056	19.305	.963	1.181
이집트	.924***	.057	16.144	.812	1.036
미국	.132*	.058	2.288	.019	.245
브라질	1.223***	.060	2.366	1.105	1.341
칠레	1.375***	.053	26.184	1.272	1.478
호주	-.173*	.058	-3.002	-.286	-.060
F	F(35, 25808)=419.860***				
R <sup>2</sup>	.334				
삼원조절 R <sup>2</sup> 변화량	F=9.869, p<.0017, $\Delta R^2 = .003,$				
주1) N=25,844					
주2) 직종 준거점: 0=회사원, 국가 준거점 0=한국					
주3) ***p<.001, **p<.01, *p<.05					

<표 5> 창업경험\*성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조건부 효과

사회안전망	Effect	se	$t$	LLCI	ULCI
저	.075	.058	1.297	-.038	.188
중	-.055	.039	-1.404	-.131	.022
고	-.184	.056	-3.309	-.294	-.075



<그림 2> 기업가 활동의도 에 대한 창업경험\*성별\*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 4.3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 성별 조절효과 및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 효과

본 연구의 가설 1b, 2b, 3b를 검증을 위해 앞서 실시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Hayes기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고, 가설 검증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먼저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검증한 결과,  $F(35, 25808.00)=433.280, p<.001$ 로 유의하였고, 분산의 설명력은 34.1%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본 연구에서 가설 1b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는 정(+)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beta=.214, p<.001$ ) 따라서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가설 2b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의 정(+)의

관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 $\beta = -.095, p < .001$ ) 확인되어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도식화한 결과, <그림 3>에서 나타내듯이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b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성별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사회안전망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삼원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 $\beta = .010, n.s$ )으로 확인되어 가설 3c는 기각되었다.

<표 6> 기업가 활동의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성별\*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기업가 활동의도						
독립:기업가정신교육	$\beta$	p	se	t	LLCI	ULCI
상수	4.103***		.071	57.672	3.964	4.243
기업가정신 교육(A)	.214***		.009	23.842	.197	.232
성별(1=남성)(B)	.210***		.018	11.679	.175	.246
사회안전망(C)	.037***		.007	5.548	.024	.050
A*B	-.095***		.017	-5.616	-.128	-.062
A*C	.050***		.006	8.957	.039	.061
B*C	.020		.012	1.671	-.004	.044
A*B*C	.010		.011	.913	-.012	.033
연령대	-.230***		.009	-26.921	-.247	-.213
결혼여부	-.019		.034	-.566	-.086	.048
자녀1	.105**		.033	3.145	.040	.170
학력	.068***		.010	6.718	.048	.088
직종(1=자영업)	.155***		.022	7.066	.112	.198
직종(1=공기관)	-.194***		.026	-7.622	-.244	-.144
직종(1=전문직)	-.078*		.033	-2.387	-.141	-.014
직종(1=기타직)	-.101		.251	-.401	-.594	.392
수입_주	.085***		.009	9.888	.068	.102
일본	-.844***		.056	-14.961	-.954	-.733
중국	.371***		.051	7.340	.272	.470
인도	1.011***		.063	16.085	.888	1.134
인도네시아	1.679***		.049	34.508	1.584	1.774
싱가포르	.517***		.053	9.813	.414	.621
영국	-.236***		.055	-4.258	-.344	-.127
독일	-1.079***		.055	-19.701	-1.186	-.971
러시아	.141*		.053	2.695	.039	.244
덴마크	-.586***		.060	-9.709	-.704	-.467
핀란드	-.751***		.055	-13.607	-.860	-.643
터키	.906***		.056	16.086	.795	1.016
uae	.986***		.053	18.658	.883	1.090
이스라엘	-.117*		.055	-2.143	-.224	-.010
남아공	1.081***		.055	19.533	.972	1.189
이집트	.953***		.057	16.704	.841	1.064
미국	.146*		.057	2.546	.034	.258
브라질	1.106***		.060	18.442	.988	1.223
칠레	1.359***		.053	25.784	1.256	1.462
호주	-.117*		.057	-2.038	-.229	-.004
F	F(35, 25808.00)=433.280***					
R <sup>2</sup>	.341					
삼원조절 R <sup>2</sup> 변화량	= $\Delta R^2 = .000, N.S F = .8335, p = .361$					
주1) N=25,844						
주2) 직종 준거점: 0=회사원, 국가 준거점 0=한국						
주3) ***p<.001, **p<.01, *p<.05						



<그림 3>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

## V. 결론

### 5.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경험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 활동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 활동의도에 대한 창업경험과 기업가정신 교육, 성별,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 창업경험, 성별, 사회안전망의 삼원조절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높은 집단에서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긍정적 관계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양준환, 2014; 이일한, 2013). 또한 Wilson, et al.(2007)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가 성별 간 차이가 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과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관계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는 살펴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합해 볼 때, 남성 여성 모두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기업가 활동의도가 증가하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에 의한 효능감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의한 기업가 활동의도는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 교육의 효과성이 여성에게 좀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창업경험,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를 글로벌 자료를 활용해 각 국가의 효과를 통제 후 규명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제도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여성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한다(Fayolle & Linan, 2014; Fini et al., 2012; Welter, 2011; Zahra & Wright, 2011). 본 연구는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그동안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돼 왔으나, 여성 기업가정신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여성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을 실증 규명했다는 점에서 여성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창업 경험의 기회를 접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정신 교육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하다(Bullough et al., 2015; Neck & Greene, 2011). 가령 수동적 학습 프로그램보다는 실행연습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 개발 및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교육함에 있어(Neck et al., 2014)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가 및 멘토들과 토론함으로써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실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습자들이 기업가적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Westhead, & Solesvik, 2016). 또한, 여성 기업가정신 촉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기업가 활동에 대한 성별 차이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신생기업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이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확인된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중고, 대학 등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기업가정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업가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은 재창업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실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가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에 관대한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재도전이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토대로 향

후 연구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재)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GERT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측정도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해당 데이터는 사회안전망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개인이 지각한 사회안전망을 측정하고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안전망 측정도구를 활용해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실제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지수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이라는 국가 맥락적 요인을 다수준 모델링 설계를 통해 이들 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와 같은 요인들 역시 기업가 활동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좀 더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Porter & Schwab(2008)는 국가 경제 성장 단계에 따라 요소, 효율, 혁신 주도형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 간 창업경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면 경제 성장 단계에 따라 기업가 활동을 촉진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병선·외(2017)는 창업경험을 단순 창업경험보다는 창업 경험 영역의 유사성이 학습경험을 높임으로써 개인 효능감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전 창업경험과 유사성이 함께 고려된 창업경험을 측정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 이전 창업경험 유사도 정도를 함께 측정한다면 창업 경험 관련된 좀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긍정적 관계가 여성에게서 강하게 확인된바, 향후 연구에서는 글로벌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창업경험과 기업가 활동의도의 관계가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이나, 기업가정신과 같은 요인에 의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뤄진다면 잠재적 능력을 갖춘 여성 기업가 선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6), 65-77.
- 이일한(2013). Mentoring Nascent Entrepreneurs: What Leads to Intention?. *벤처창업연구*, 8(2), 47-52.
- 이종진·김현철·안태항(2014). 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 *경영학연구*, 43(2), 561-586.
- 황병선·안준모·공혜원(2017). IT 기반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유치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 *벤처창업연구*

- 7, 12(4), 35-46.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rmitage, C. J., &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Autio, E., Pathak, S., & Wennberg, K.(2013). Consequences of cultural practices for entrepreneurial behavio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4(4), 334-362.
- Bae, T. J., Qian, S., Miao, C., & Fiet, J. 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 Bandura, A.(1986).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ec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 Becker, G. S.(1975). Front matt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Second Edition*, 22-20, NBER.
- Bullough, A., De Luque, M. S., Abdelzaher, D., & Heim, W.(2015). Developing women leaders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9(2), 250-270.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Davidsson, P., & Honig, B.(2003). The role of social and human capital among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3), 301-331.
- De Bruin, A., Brush, C. G., & Welter, F.(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owards building cumulative knowledge on women'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5), 585-593.
- De Vita, L., Mari, M., & Poggesi, S.(2014). Women entrepreneurs in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s from the literature,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2(3), 451-460.
- Der Foo, M., Wong, P. K., & Ong, A.(2005). Do others think you have a viable business idea? Team diversity and judges' evaluation of ideas in a business plan competi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3), 385-402.
- DeTienne, D. R., & Chandler, G. N.(2004).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its role in the entrepreneurial classroom: A pedagogical approach and empirical tes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3(3), 242-257.
- DeTienne, D. R., & Chandler, G. N.(2007). The role of gender in opportunity identifi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65-386.
- Dickson, P. H., Solomon, G. T., & Weaver, K. M.(2008). Entrepreneurial selection and success: does education matter?,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239-258.
- Dohse, D., & Walter, S. G.(2012). Knowledge contex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stud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39(4), 877-895.
- Douglas, E. J., & Shepherd, D. A.(2002). Self-employment as a career choice: Attitud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utility maximiz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3), 81-90.
- Dyer Jr, W. G.(1995).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aree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2), 7-21.
- Eagly, A. H., & Kite, M. E.(1987). Are stereotypes of nationalities applied to both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451.
- Eckel, C. C., & Grossman, P. J.(2003). *Forecasting risk attitudes: An experimental study of actual and forecast risk attitudes of women and men*, Virginia Tech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 Engle, R. L., Schlaegel, C., & Delanoe, S.(2011). The role of social influence, culture, and gender on entrepreneurial intent,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4(4), 471-492.
- Fayolle, A., & Liñán, F.(2014). The future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5), 663-666.
- Fini, R., Grimaldi, R., Marzocchi, G. L., & Sobrero, M.(2012).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in small and newly established fir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2), 387-414.
- Gupta, V K, Turban, D B, Wasti, S A, & Sikdar, A.(2009). The role of gender stereotypes in perceptions of entrepreneurs and intentions to become an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2), 397-417.
- Hayes, A. F.(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ofstede, G.(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age publications.
- Hwang, B. S., Ahn, J.M., & Kong, H. W.(21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tart-up Investment Stage of IT-based Enterprises,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4), 35-46.
- Lee, J. K., Kim, H. C., & Ahn, T. H.(2014). Self-Efficacy and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 *Korean Management Review*, 43(2), 561-586.
- Lee, I. H.(2013). Mentoring Nascent Entrepreneurs: What Leads to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47-52
- Kanze, D., Huang, L., Conley, M. A., & Higgins, E. T.(2018). We Ask Men to Win and Women Not to Lose: Closing the Gender Gap in Startup Fund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61(2), 586-614.
- Karimi, S., JA Biemans, H., Lans, T., Chizari, M., & Mulder, M.(2014). Effects of role models and gender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38(8), 694-727.
- Kautonen, T., Luoto, S., & Tornikoski, E. T.(2010). Influence

- of work histor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prime age' and 'third age': A preliminary study,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8(6), 583-601.
- Kautonen, T., van Gelderen, M., & Fink, M.(2015). Robustnes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predi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9(3), 655-674.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4), 315-330.
- Kuckertz, A., & Wagner, M.(2010). The influence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Investigating the role of business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524-539.
- Lüthje, C., & Franke, N.(2003). The 'making'of an entrepreneur: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d Management*, 33(2), 135-147.
- Maes, J., Leroy, H., & Sels, L.(2014). Gender differences i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TPB multi-group analysis at factor and indicator level,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2(5), 784-794.
- Maresch, D., Harms, R., Kailer, N., & Wimmer-Wurm, B.(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versus business studies university program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04, 172-179.
- Martin, B. C., McNally, J. J., & Kay, M. J.(2013). Examining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entrepreneurship: A meta-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2), 211-224.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ian, S. A.(1997). Assessing and managing the university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251-285.
- Minniti, M., Bygrave, W. D., & Autio, E.(200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4 Report on Women and Entrepreneurship*.
- Minniti, M., & Naudé, W.(2010). *What do we know about th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female entrepreneurship across countries?: Springer*.
- Naguib, R., & Jamali, D.(2015). Female entrepreneurship in the UAE: a multi-level integrative lens,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30(2), 135-161.
- Neck, H. M., & Greene, P. G.(2011). Entrepreneurship education: known worlds and new fronti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55-70.
- Neck, H. M., Greene, P. G., & Brush, C. G.(2014). *Teaching entrepreneurship: A practice-based approach*: Edward Elgar Publishing.
- Nowiński, W., Haddoud, M. Y., Lančarič, D., Egerová, D., & Czeglédi, C.(2017).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gender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Visegrad countri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19.
- Oosterbeek, H., van Praag, M., & Ijsselstein, A. (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 442-454.
- Packham, G., Jones, P., Miller, C., Pickernell, D., & Thomas, B.(2010).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Education+ Training*, 52(8/9), 568-586.
- Pittaway, L., & Cope, J.(200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5(5), 479-510.
- Politis, D., Winborg, J., & Dahlstrand, Å. L.(2012). Exploring the resource logic of student entrepreneur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0(6), 659-683.
- Porter, M. E., & Schwab, K.(200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ruett, M., Shinnar, R., Toney, B., Llopis, F., & Fox, J.(2009).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5(6), 571-594.
- Ramadani, V., Hisrich, R. D., & Gërguri-Rashiti, S.(2015). Female entrepreneurs in transition economies: insights from Albania, Macedonia and Kosovo, *World Review of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1(4), 391-413.
- Rauch, A., & Hulsink, W.(2015). Put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ere the intention to act lies: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4(2), 187-204.
- Robinson, P. B., Stimpson, D. V., Huefner, J. C., & Hunt, H. K.(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5(4), 13-32.
- Schlaegel, C., & Koenig, M.(201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 A Meta-Analytic Test and Integration of Competing Model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91-332.
- Schött, T., Kew, P., & Cheraghi, M.(2015). *Future Potential: A GEM Perspective on Youth Entrepreneurship*.
- Segal, G., Borgia, D., & Schoenfeld, J.(2005). The motivat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1(1), 42-57.
- Sesen, H. (2013). Personality or environment?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Training*, 55(7), 624-640.
- Shinnar, R. S., Giacomini, O., & Janssen, F.(2012). Entrepreneurial perceptions and intentions: The role of gender and cul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 Practice*, 36(3), 465-493.
- Shirokova, G., Osiyevskyy, O., & Bogatyreva, K.(2016). Exploring the intention-behavior link in student entrepreneurship: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4(4), 386-399.
- Souitaris, V., Zerbinati, S., & Al-Laham, A.(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591.
- Thébaud, S.(2010). Gender and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choice: do self-assessments of ability matte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3(3), 288-304.
- Thompson, E. R.(2009). Individual entrepreneurial intent: Construct clarific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ly reliable metric,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669-694.
- Von Graevenitz, G., Harhoff, D., & Weber, R.(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90-112.
- Wagner, J.(2007). What a difference a Y makes-female and male nascent entrepreneurs in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28(1), 1-21.
- Walter, S. G., & Dohse, D.(2012). Why mode and regional context mat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4(9-10), 807-835.
- Welter, F.(2011). Contextualizing entrepreneurship—conceptual challenges and ways forward,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1), 165-184.
- Wennekers, S., Thurik, R., van Stel, A., & Noorderhaven, N.(2007). Uncertainty avoidance and the rate of business ownership across 21 OECD countries, 1976–2004,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17(2), 133-160.
- Westhead, P., & Solesvik, M. Z.(2016).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 female students benefi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Researching Entrepreneurship*, 34(8), 979-1003.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1,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Yang, J. H. (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ordanova, D. I., & Tarrazon, M. A.(2010). Gender differences in entrepreneurial intentions: Evidence from Bulgaria,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5(03), 245-261.
- Zahra, S. A., & Wright, M.(2011). Entrepreneurship's next act,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5(4), 67-83.
- Zhang, Y., Duysters, G., & Cloudt, M.(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redictor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3), 623-641.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Social Protection\*

Hyewon K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xperience and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se relationships.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d GETR(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data that was collected by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and was consisted of 40,388 data collected from 2,000 people in 20 countries.

First, entrepreneurship experienc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Second, gender moderating effects on these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Specifically, the positiv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found to be stronger for women than for men. Finally, the analysis of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the social protection confirme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stronger for women than for men, and this effect was found to be higher in the high social protection group. In other words, women with entrepreneurial experience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when they are more aware of social protection than men.

*Keywords: Femal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Experien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Aactivity, Entrepreneurial Intention, Social Protection, Gende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funded b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8)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Kyonggi University (chomirir79@gmail.com / hwkong@kgu.ac.kr)